

중년기여성의 노후준비도 및 노후생활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연구

A Study on Preparations for Elderhood and the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ly Life for Middle-aged Women

황승희(Hwang, Seunghoe), 김혜연(Kim, Hyeeyeon)*

Department of Faculty of Human Ecology &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researches the actual preparations for elderhood as well as recognizes general preparations for it, and analyzes the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ly life. Married women aged 35 years to 60 years who live in Jeju province were surveye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y, t-test, and one way ANOV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middle-aged women aren't prepared for elderhood. Second, regarding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ly life,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were in high demand: that the part of life design establishes positive old-age form, maintenance of good health, investment knowledge, leisure activitie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Thir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on elderlylife were found according to age, the age of the last child, income, the age at which one prepares for elderhood, and the amount of funds reserved for elderhood.

▲주제어(Key Words) : 중년기 여성(middle-aged women), 노후준비도(preparation for old age),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on elderly life)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77.2세, 여성은 84.1세로 높아졌다. 제주지역은 이미 1998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 201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제주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2%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이러한 제주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2~3년 이상 빠를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층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하는 것으로써 인생에서 노년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는 것으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

• 본 논문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Kim, Hyeeyeon, Department of Faculty of Human Ecology & Welfare,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 690-756, Korea, Tel: +82-64-754-3574, E-mail: morning@jejunu.ac.kr

해야 하는 중년층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노인 부양비의 악화, 부양비의 급증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S. KO & J. Kim, 2008) 개인적으로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 건강, 은퇴 후 역할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 여가생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이다(J. Park, 2007). 또한 짧아진 근무연수, 불안정한 고용지위, 조기은퇴 등 고용패턴의 변화는 경제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후 생활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저임금, 비정규직(임시, 일용직) 종사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또한 여성들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중년기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개인에 따라서는 성공한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즐거운 경험을 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갱년기가 오는 등 노화가 시작되며, 질병, 실직, 남편과의 사별 등으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에 많은 경제적 지출로 인하여 자신의 노후준비를 희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K. Todd & A. Sharon, 1997). 따라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며 노후준비 없이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오히려 다가올 노년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년기가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이 가족부양의 어려움과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노후생활교육에 관한 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있다 할지라도 1회성 교육으로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시간부족, 경제적 어려움,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일어나는 변화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 변화에 따른 문제 상황을 인식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과 지식 습득을 돕는 노후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J. Kim, 2013). 즉, 노인의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노년이 길어짐으로 인해 예전과는 노후 인생 계획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하고 질 높은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 생활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 노인이 많은 제주지역 역시 이러한 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거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노후를 대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이 일회성인 특강이거나 몇몇 생활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지역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노후에 관한 연구(J. Kim, 20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E. Cho, 2006; S. Hong, K. Lee, I. Kwak, H. Kim, & S. Kim, 1998)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그 대상자가 직장인, 퇴직자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다수 보고 되고 있지만 주로 건강, 위기극복, 가족관계, 부부관계, 경제, 평생교육 등 생활의 일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H. Kim, 2006; I. Kim, 2004) 전체적인 중년기 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중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노후준비도 및 전반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요구도를 조사하고, 중년기 여성들의 특징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중년기 여성들의 노후준비 실태와 함께,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준비도

노인문제가 일찍부터 대두된 선진국의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개인 혹은 국가에서 노후대책을 세워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과도적인 단계로서 개

인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며 국가적 측면에서도 미약한 실정이다(H. Ahn, H. Kim, J. Anh & Y. Kim,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im(2013)는 중장년층이 노년기에 앞서 미리 노후생활에 대해 어떠한 생활 목표를 세울 것인지 또는 노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기적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기적 사회화를 통해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노후생활에 대해 더욱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후준비에 있어서 실행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는 80년대 후반부터 보고되었다. 기혼 여성들의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S. Kye(1988)의 연구 결과에서 노후생활계획을 실제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5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한 노후계획시기가 처음 직장을 가지거나 은퇴 전 20-30년 전부터나, 연령으로 35세 전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기혼여성이 약 50% 정도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경제적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즉, 자녀교육 및 양육, 혼인비용 등의 지출로 장년층은 노후계획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노후계획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최근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05)는 서울지역 직장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55.1%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령별로 20대 48.9%, 30대 64.8%로 젊은 층의 노후 준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노후자금은 3-4억원이 29%로 가장 많았다. 2030세대는 50대 중반, 4050세대는 60대 초반까지 일하길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Statistics Korea(2009)의 자료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도에 대해 남성 80.9%, 여성 55.5%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중 남성은 국민연금이 60.3%로 가장 높고, 여성은 예금이나 적금이 52.2%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9세 75.5%, 40-49세 76.5%, 50-59세 68.3%, 60세 이상 31.1%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은 노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H. Kim (2006)도 여성 직장인의 경우 남성 직장인에 비해 정신·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 노후생활교육 요구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래서 H. Ahn et al(2009)은 노후 준비도가 높고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E. SunWoo(2003)은 장년층의 노후생활을 대비한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40-50대를 대상으로 노년기 건강과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대책을 준비하

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H. Shin(2003)은 40-50대 중년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인 준비는 저축과 보험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및 배우자가 노후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J. Park(2007)는 중년기 여성이 가장 염려하는 노후의 문제는 건강(61.2%)과 경제력(29.2%)으로 나타나 경제적 준비와 건강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 여성들은 역할상실과 자녀의 독립, 주변사람들의 죽음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공허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서 정서적 측면의 안정이 중요하고 가족, 동료, 친척,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에 대한 해방으로 생활시간 및 여가시간의 활용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시간 동안 취미나 오락, 봉사나 문화적 활동 등 상황에 맞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중년기부터 준비를 해야한다(S. Hwang, 2000).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은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이전에는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신체적 측면과 인지적 기능과 우울 및 정신건강 등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생산성 같은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J. Rowe & R. Kahn, 1997). 즉,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인 측면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후의 준비도가 남성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아 노후준비에 충분하지 못한 소득상황에 처해 있으며, 노인문제, 여성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I. Kim (2004)은 여성의 사회구조적인 취약성,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여성노인에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의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배우자 상실로 혼자가 된 여성에게 심각한 경제문제를 직면하게 한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나 배우자의 죽음은 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장받았던 경제적인 혜택의 상실을 의미하며, 남성보다 긴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노인의 빈곤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여성노인의 빈곤은 여성노인의 직업 유형에서도 드러난다. 직종 및 근무 형태 차이는 소득수준 차이로 연결되며 이는 곧 노후생활의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다. 즉, 높은 이혼률과 직업 지위가 낮은 제주 여성의 경우 노후 생활이 빈곤할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하고 이

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노후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년 여성들의 노후 준비는 미비한 수준이며 신체적, 건강적, 경제적, 여가적, 가족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노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후준비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2.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노후준비교육은 노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변화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 변화에 따른 문제상황을 인식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과 지식 습득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고 더 나은 노년기 삶을 위한 노년기 예비적 사회화로써 노후준비교육은 매우 필요하다(J. Kim, 2013). 특히, E. Cho(1998)은 노후준비교육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현상의 대처 능력 향상과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공적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교육의 운영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교육으로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둘째, 대학이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셋째, 각종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넷째, 국민연금공단이나 노인인력개발원과 같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다섯째,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이처럼 노후관련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인인력개발원(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바우처 사업)이나 외부기관 위탁사업으로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프로그램(PBL: Program for Beautiful Life)을 운영하고 있다. PBL은 은퇴 전과 후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적으로 새로운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자기진단을 하고 2단계에서 일/시간/재정을 진단하고 생애경력 목표를 설정한다. 3단계에서는 목표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학습을 하고 4단계 실습을 하고 5단계에서는 사후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s://kordi.go.kr/>).

둘째,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은 현실적으로 취약한 개인별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후설계서비스(CSA: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노후생활 6대 영역인 재무,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http://www.nps.or.kr/>).

셋째,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KT, 포스코 등의 기업은 직원 및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이나 노후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은퇴준비교육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재산관리, 건강관리, 퇴직생활 사례, 퇴직 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는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를 대비한 재무관리를, 한국토지공사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재무 설계에 관해 특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은퇴를 1년 앞둔 예비은퇴자를 대상으로 그린라이프 디자인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환경변화 대처 능력 함양, 재테크 테크닉, 건강, 스트레스 관리, 창업준비교육도 실시하였다. KT는 생애 재무설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생활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외 많은 기업에서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였다(H. Kim, 2006).

넷째, 대학에서의 노후생활교육은 부설기관, 평생교육원, 연구소, 학과/대학원, 사이버대학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운영 형태는 지자체 등의 위탁운영으로 실시되는 대학, 자체지원의 무료강좌를 운영하는 곳, 자체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는 등 다양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대학에서 운영되는 과정으로는 건국대학교 종합금융아카데미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노인교육 지도사 과정, 서울사이버대학교 e-노후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노후 대비 교육은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 하는 멋진 노후 당당한 내 인생, 건전한 가정 우리가 가꾸어요, 한국 노인 복지관협회에서 하는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노후생활전반에 대한 이해와 직업, 주거, 경제, 시간, 가족관계, 건강, 여가, 봉사, 죽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생이 적거나 단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 Kim, 2006).

마지막으로 종교기관은 그 특성상 시설자원, 인적 자원,

재정자원 및 조직자원이 풍성하고, 교리에 근거하여 노인 평생교육 및 노인복지를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 평생교육 실시 종교기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J. Bae, 2009). 종교기관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그 구성이 각 종교기관에 의해서 자유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며 크게 교양영역, 종교영역, 사회활동영역, 신체건강영역 처럼 노후설계프로그램보다는 여가생활프로그램이 다수이며, 대부분의 경우 고령층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제주지역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제주지역에서 노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체기관 수는 273개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을 분류해 보면, 민간 교육기관이 181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70곳, 교육청 15곳, 그리고 대학(교)부설기관 7곳의 기관이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 진행되는 노후교육프로그램은 노후대비보다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프로그램이 상실과정과 수시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건강, 취미, 취업, 봉사 등으로 한정되어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며, 노후관련교육은 경제교육 등 한정된 영역에서 1회성 특강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프로그램을 총 10회로 구성하였고,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터에서는 '건강한 노후 만들기' 프로그램을 1회성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Table 1> 참조).

4. 선행연구의 고찰

S. Kim(1996)는 35-60세를 중년으로 정의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인 준비도도를 알아보았다. 중년기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을 스스로 준비하는 경향이 많으며, 노후에 대한 대책은 건강과 경제적인 준비도가 가장 높았으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인 준비 세 가지가 서로 동시에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H. Lee(1997)은 30-40세 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의 노후생활준비 의식·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준비로 연구한 결과 젊은 나이에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 노후의 동일한 목표를 달성 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노후 생활을 계획적으로 준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 Hong. et al(1998)는 노인의 생활문제를 경제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가사노동의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이는 심리적 변수인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노년기 가계가 노후의 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부양형태는 독립적 부양이며 특히 중년기에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해 노후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장기적인 생활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G. Jun, H. Song, S. Go & I. Kim(2000)는 노년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지적되는 것이 부부관계, 세대관계 등 가족관계 요인이며 생활범위가 가족에게로 축소되는 시기로 부부나 자녀 등 가족간의 유대나 가

Table 1. Family Life Program of the Old in the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Agencies	Target	Program	Number	Contents
Jeju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Middle-aged, elderly	Bravo, my life!	10	Look back upon life, health education Health and eating habits, my role in the home New life for seniors living Be close-knit grandchild Consumer life How to have a happy time Recreation, dancing
Seogwipo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Healthy aging	1 (special lecture)	Healthy eating habits, exercise, geriatrics, Depression and prevention of dementia

Source: Jeju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http://jeju.familynet.or.kr/>; Seogwipo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http://seogwipo.familynet.or.kr/> 참고로 하여 재구성

족관계 만족도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 등 전반적인 안녕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J. Rowe and R. Kahn(1997)도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부부관계의 질이 주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이는 오랜 시간 유지해 온 부부관계는 그들이 사회생활에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고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J. Han(1993)은 20-60대 연령의 서울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교육에 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시작 연령은 4-50대가 적합하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에 필요한 지식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대응에 관한 지식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노년기 교육의 참여 이유는 지식이나 정보획득의 목적이 높으며 노년기 교육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건강관리, 취미생활, 신앙생활, 노인복지, 가족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S. Hong, and I. Kwak(2006)은 노후준비에서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 영역이 상이하였으며 여성은 정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를 잘 한다고 하였다. 노후준비에는 주관적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현재의 주관적 경제적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노후대책으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문제는 3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경제준비와 함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년 연령의 상향조정 또는 노인 재취업의 문호를 넓히고 연금제도를 개발하고, 의료보장체계의 점진적 확대 및 개선으로 수혜의 질을 높이는 일련의 사회복지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 Kim(1993)는 퇴직 전 노후준비 교육 내용에서 퇴직 이후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퇴직 후의 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퇴직예정자나 퇴직자들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재정, 건강, 인간관계, 여가활동, 사회참여, 퇴직과 노령에 대한 태도, 주택, 법률지식,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G. Jun et al.(2000)는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우선적인 순위에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건강유지, 노후대책 및 경제생활,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기본적인 필요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노후를 위한 설계, 건강관리, 가정생활, 여가생활 등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S. Carney-Crompton & J. Tan(2001)은 다양한 자신의

역할과 시간 갈등 그리고 부족한 지원체제로 인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9)는 노후설계교육이 건강유지 및 증진, 재정관리,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표준이 설정되지 않아 내용적 표준화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상호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였다. 노년기 전체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전반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노후준비도와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노후생활을 5가지 생활 영역, 즉 생활설계영역, 건강영역,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가족관계영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35세-60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들의 노후준비도,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관한 요구도를 알아보고,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노후 준비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노후 준비도에 따라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교육 요구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노후 준비도와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 요구도를 묻는 질문은 H. Lee(2009), I. Kim(2004)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는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이다. 이 때 노후생활 교육프로그램 요구도는 생활설계영역, 건강영역,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및 가족관계영역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의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

Contents	Number of sentences	Cronbach's α
Preparation for old age	9	.838
Demands for education programs of old age	part of life design	.807
	part of health	.854
	part of economical life	.877
	part of leisure life	.854
	part of family relations	.847
Total	36	.846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중년기를 구분하여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35-60세 이하의 기혼여성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33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91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후준비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후 준비도 및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 차이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35세-40세가 27.1%, 41-45세가 15.1%, 46-50세가 18.2%, 51-55세가 20.6%, 56세-60세가 18.9%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47.8세였다. 학력은 고졸이하 57.4%, 초대졸이상이 42.6%로 고졸이하가 약간 많

았다. 결혼 상태는 부부 함께 거주가 82.2%, 기타가 17.8%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현재 남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수는 2명이 55%, 3명 이상이 29.4%, 1명이 15.6%로 나타나 과반수가 자녀 2명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은 20대 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다. 직업유무에서는 취업자가 59.9%이며, 비취업자가 40.1%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직종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보다 판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월평균소득은 279만원이었으며 구체적으로 201-300만원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1만원 이상이 28.5%, 101만원-200만원 25.5%, 100만원 이하가 17.0%였다. 그리고 월평균 생활비는 195만원이었으며 100만원 이하 28%, 101만원-200만원 40.1%로 대부분의 월평균 생활비가 2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 평균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지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Statistics Korea, 2011). 노후대비저축액은 101만원 이상이 50.6%, 100만원 이하가 49.4%이며, 주거형태는 자가 67.9%, 기타가 32.1%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몇 세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39세 이하 37%, 50세 이상 31.9%, 40세-49세 31.1%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41.8세로 나타났다. G. Jun et al (2000)도 노후준비 시작 연령은 4-50대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노후가 됐을 때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는 17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170만 원 이하 53.4%, 171만 원 이상이 46.6%로 나타났다.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의사가 있다' 81%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가 85.3%로 조사대상자 대부분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Jeju Women Statistics(2008)의 도민 63.4%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 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aged Women

(N=291, %)

Categorical variable		Freq	%
Age	35-40	79	27.1
	41-45	44	15.1
	46-50	53	18.2
	51-55	60	20.6
	56-60	55	18.9
Education level	under 12yrs	166	57.4
	over 13yrs	123	42.6
Status of marriage	Married	235	82.2
	Not married	51	17.8
No. of children	1	45	15.6
	2	159	55.0
	Over 3	85	29.4
Age of the youngest	Under 7	60	21.1
	8-13	52	18.2
	14-19	53	18.6
	Over 20	120	42.1
Job	Not have	115	40.1
	Have	172	59.9
Household income (10,000 Won)	Under 100	48	17.0
	101-200	70	25.5
	201-300	79	29.0
	Over 301	78	28.5
Household expenditure (10,000 Won)	Under 100	76	28.0
	101-200	108	40.1
	Over 201	87	31.9
Type of house	Private house	195	67.9
	Others	92	32.1
Starting age for preparation of retirement	Under 39	104	37.0
	40-49	88	31.1
	Over 50	91	31.9
Retirement fund	Under 170	151	53.4
	Over 171	132	46.6
Preparing for retirement savings(10,000 Won)	Under 100	127	49.4
	Over 101	130	50.6
Preparation for old age	Do	227	85.3
	Do not	39	14.7
Participate in education program for old life	Yes	209	81.0
	No	49	19.0
Continuous variable		Means	SD
Age (yr)		47.8	7.528
Age of the youngest (yr)		17.2	9.606
Household income (10,000 Won)		279	216.38
Household expenditure (10,000 Won)		195	135.45
Starting age for preparation of retirement (yr)		41.85	12.43
Retirement fund (10,000 Won)		170	93.67
Preparing for retirement savings (10,000 Won)		270	103.75

* Total numbers are different because of missing data.

Table 4. Preparation for Old Age (N=291)

Contents	Means	SD
I have been doing the preparation of retirement for the design with myself or professionals.	2.29	1.16
I'm saving more than 20% of household income for retirement.	2.89	1.17
I have an additional saving except for public pension	3.24	1.13
I can get a regular monthly income what I can earn is more than 80% of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in before retirement.	2.23	.91
The pension can cover about 70% to 80% of the cost of living.	2.55	1.05
I took a preparation for medical expenses of retirement.	2.85	1.05
I decided the specific time for he preparation of retirement.	2.45	1.03
I decided the objective what I will do after retirement.	2.64	1.05
I have been exercising consistently for retirement.	2.76	1.06
Total	2.66	1.07

*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3, neutral; 5, strongly agree).

2.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도

조사대상자의 현재 노후준비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노후준비도는 평균 2.66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3%에 이룸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에 대해 5점 기준으로 볼 때 중간 이하의 낮은 응답을 한 것은 노후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재,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S. Choi(2009)의 연구에서도 노후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일어나기 위한 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이외에 추가저축을 하고 있다'가 3.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노후 전 평균 월 가계소득의 80% 이상이다'가 2.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에 대한 목표설정과 고정적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 노후 할 일 등을 실제적으로 정리 해보는 노후준비 설계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또는 전문가와 함께 노후준비를 위한 설계를 해 본적이 있다'가 2.29점 이었으며 '은퇴할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가 2.45점이었다. 이는 중년 여성들이 구체적인 노후준비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제주지역 여성의 상황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여성의 임금근로

자 비율은 66.7%이나 그 중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20.3%)이 가장 높은 편으로 여성들의 이직이 쉬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주여성 인구 중 60세 이상이 전체 여성의 22.1%로 가장 높은 편이며 여성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제주여성통계, 2011). 즉,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노후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며 여성들의 직업이 임시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노후준비를 위한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여성의 노후준비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제주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학교의 학부모교육, 아파트 부녀회 및 반사회 등 찾아가는 노후준비교육이 필요하겠다.

3. 조사대상자의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요구도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을 생활설계영역, 건강영역,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가족관계영역으로 나눠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의 평균값은 3.6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생활설계영역은 3.66점이었으며, 긍정적 노년상 정립이 3.84점으로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년기 생활의 계획과 관리 3.82점, 노년기 생활설계의 이해 및 필요성 3.7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노년상을 정립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5.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ly Life (N=209)

Categories		Means	SD
Part of life design	Both understanding and necessity for living design in retirement	3.73	.785
	Writing method for Memoir of life	3.24	.862
	Change of Both current life and retirement life	3.63	.767
	The role of the elderly in both home and community	3.68	.799
	Planning and management of living in the old age	3.82	.814
	Establish the positive aging	3.84	.818
	Total	3.66	.808
Part of health	Stress management	4.08	.810
	Both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method for the alienation and the loneliness	3.95	.959
	Understand body transformation	3.88	.834
	Healthy management	4.23	.632
	The prevention of elderly disease	4.19	.725
	Dietary management	4.18	.718
	Total	4.09	.780
Part of economical life	Financial technology	3.55	.984
	Acquire and prepare the license of elderly	3.17	.961
	Prepare the outplacement of elderly	3.23	.9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3.05	.961
	Calculating retirement funds	3.32	.968
	Inheritance	3.26	.966
	Total	3.26	.958
Part of leisure life	Provide information on leisure	3.85	.829
	Volunteer work	3.84	.733
	Social activities	3.85	.820
	Leisure and time management	3.90	.801
	Learning activities	3.59	.889
	Total	3.81	.814
Part of family relations	Improving the couple relationship	3.48	.898
	Take care of grandchildren	3.35	.811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	3.77	.818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3.93	.789
	Total	3.63	.829
Total		3.69	.839

*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3, neutral; 5, strongly agree).

건강영역은 평균 4.09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노년기의 건강유지법 4.23점, 노년기 질병예방법 4.19점, 노년기 식생활 관리법 4.18점, 스트레스 관리법 4.0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노인 건강에 높은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J. Kim, 2013).

경제생활영역은 평균 3.26점으로 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후대비 채테크방법 3.55점, 노후자금 산출법 3.32점, 유산상속법 3.26점, 노년 재취업준비 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G. Jun et al(2000)는 노후 여가활동을 통한 윤택한 생활과 적정 규모의 재산을 자손에게 상속할 것인가 등 어느 항목에 더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앞으로 경제생활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생활 요구도가 낮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가생활영역은 평균 3.81점으로 노년기 여가 및 시간관리 3.90점, 노년기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3.85점, 노년기 사회활동 3.85점, 노년기 자원봉사 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영역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 3.93점,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 3.77점, 부부관계 증진 3.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 E. Cho(2006)의 연구와 같이 가족간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요구도의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노후준비도에 따른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요구도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 막내자녀연령, 월평균소득, 노후준비시작연령, 노후필요자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5세 이하의 집단에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영역에서도 40세 이하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 가족관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막내자녀가 13세 이하 집단일 때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여가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

타났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을 더 추구하며 질적으로 나은 생활을 즐기기를 원하다는 H. Kim (2006)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직업에서는 생활설계영역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건강영역,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는 건강영역과 여가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고 1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 노후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는 건강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가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들보다 기타집단이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노후준비시작연령은 생활설계영역,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39세 이하 집단에서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후필요자금은 경제생활영역에서와 가족관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월평균 171만원 이상 집단에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이 젊은 집단,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은 집단,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3-40대와 50대 이상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3-40대 여성들이 계획적 생활과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막내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일보다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여가생활영역에 대한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요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수준의 지표인 소득과 생활비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가 노후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현재의 생활을 해 나가기에 빠듯하기 때문에 미래인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별, 개인별로 다양한 맞춤형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노후준비도에 따라서는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노후준비도에 대하여 낮은 수준(2.66점)이었으며 노후준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한 제주도의 실정에서 노후준비방법이 연금, 예금, 주식 등에 한정된 방법(학위논문참고)이기 때문에 집단간에 차이가 없이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6. Difference in the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lderly Life

(N=209)

Variables	Categories	Freq	Part of life	Part of	Part of	Part of	Part of	Total
			design	health	economical	leisure	family	
			Means	Means	Means	Means	Means	Means
Age	35-40	61	3.68	4.15	3.61c	4.02c	3.77	3.84b
	41-45	33	3.66	4.09	3.33c	3.81bc	3.53	3.68ab
	46-50	38	3.80	4.12	3.28bc	3.87bc	3.76	3.80b
	51-55	37	3.64	4.07	2.97ab	3.67ab	3.58	3.60ab
	56-60	40	3.50	4.00	2.81a	3.47a	3.43	3.48a
F			1.26	.58	7.79***	4.30*	1.87	3.07*
Education level	under 12yrs	111	3.68	4.10	3.13	3.71	3.66	3.70
	over 13yrs	98	3.63	4.06	3.40	3.90	3.60	3.71
T			.57	.43	-2.47	-1.93*	.60	-.11
Status of marriage	Married	168	3.67	4.10	3.27	3.81	3.65	3.72
	Not married	37	3.63	4.05	3.23	3.76	3.52	3.67
T			.30	.38	.24	.35	.92	.52
Age of the youngest	Under 7	47	3.78	4.13	3.61b	4.00b	3.77b	3.87b
	8-13	39	3.59	4.14	3.50b	3.92b	3.76b	3.77ab
	14-19	40	3.64	4.00	3.10a	3.75ab	3.37 a	3.60a
	Over 20	78	3.61	4.07	3.00a	3.63a	3.61ab	3.62a
F			1.01	.48	8.52***	3.42*	3.00*	2.70*
Job	Not have	82	3.52	4.02	3.37	3.79	3.58	3.65
	Have	126	3.74	4.13	3.19	3.81	3.66	3.74
T			-2.44*	-1.32	1.56	-.24	-.89	-1.20
Household income	Under 100	31	3.53	3.78a	2.90a	3.40a	3.46	3.50a
	101-200	51	3.67	4.02b	3.33b	3.80b	3.65	3.72b
	201-300	63	3.72	4.18b	3.41b	3.91b	3.74	3.78b
	Over 301	57	3.66	4.21b	3.25b	3.93b	3.61	3.73b
F			.79	4.43*	3.39*	5.56*	1.28	2.76*
Household expenditure	Under 100	53	3.61	3.92a	3.12	3.63a	3.55	3.59
	101-200	85	3.68	4.17b	3.26	3.91b	3.68	3.78
	Over 201	65	3.68	4.13ab	3.37	3.83ab	3.65	3.73
F			.30	2.90*	1.51	2.86*	.56	1.69
Type of house	Private house	138	3.63	4.06	3.20	3.79	3.67	3.69
	Others	68	3.73	4.13	3.39	3.83	3.58	3.77
T			-1.10	-.71*	-1.61	-.34	.90	-1.03
Starting age for preparation of retirement	Under 39	82	3.78	4.17	3.51	3.96	3.75	3.85
	40-49	58	3.63	4.02	3.14	3.69	3.56	3.63
	Over 50	64	3.50	4.04	3.02	3.69	3.54	3.59
F			4.09*	1.28	7.97***	3.85*	2.05	4.81*
Retirement fund	Under 170	104	3.67	4.10	3.17	3.75	3.63	3.69
	Over 171	99	3.65	4.07	3.36	3.86	3.64	3.73
T			.24	.41	-1.68*	-1.08	-.14*	-.50*
Preparing for retirement savings	Under 100	125	3.66	4.10	3.30	3.89	3.63	3.75
	Over 101	62	3.67	4.05	3.18	3.61	3.63	3.63
T			-.12	.55	.98	2.73	.06	1.33
Preparation for old age	Under 2	90	3.59	4.09	3.24	3.78	3.66	3.67
	Over 3	111	3.73	4.08	3.20	3.80	3.63	3.69
T			-1.51	.14	.25	-.17	.21	-.23

Note. Total numbers are different because of missing data.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평균 수명의 연장,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 스스로 노후준비나 노후설계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노후생활이 아니라 생활의 한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이상~60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 차이는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으로는 39세 이하, 노후가 됐을 때 필요한 자금으로 월평균 17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3%, 하고 있지 않다가 14.7%로 응답자 대부분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도는 2.66점으로 전체적인 노후준비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공적연금 이외에 저축을 하고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 운동의 순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영역에 비해 경제적 준비도와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도가 높은 편이었다.

셋째,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건강영역, 여가생활영역, 생활설계영역, 가족관계영역, 경제생활영역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이 젊은 집단일수록 막내자녀연령이 13세 이하 집단일수록 노후준비시작연령이 젊은 집단일수록 경제생활영역, 여가생활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영역에, 직업을 가진 집단일 때 생활설계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 및 월지출 비용이 높은 집단일수록 건강영역, 여가생활영역 등에서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필요자금은 경제생활

영역에서와 가족관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85.3%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도는 2.6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후준비도에 대해 5점 기준으로 볼 때 중간 이하의 낮은 응답을 한 것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재,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노후생활교육 및 노인교육이 다양한 생활영역보다는 운동이나 건강, 교양 프로그램 등 한정된 영역(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방법과 생활영역을 다루는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특히,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9)가 노후교육의 체계화와 내용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한 연구결과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연령이 젊은 집단,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은 집단,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여가생활영역에 대한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가생활은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J. Kim(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남은 시간 무료함을 달래는 단순소일형 여가활동에 참여가 많았고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인에게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제주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다양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준비도에 따라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노후준비도에 대하여 낮은 수준(2.66점)이었으며 노후준비방법이 연금, 예금, 주식 등에 한정된 방법이기 때문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준비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1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제주지역의 여성은 과거부터 육지부의 여성과는 다른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 요구도는 생활설계영역에서는 긍정적 노년상 정립, 건강영역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유지법, 경제생활영역에서는 노후대비 재테크방법, 여가생

활영역에서는 노년기 여가시간 관리, 가족관계영역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 방법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중년기 여성들의 생애주기 가족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소개하거나 홍보, 신문 발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노후준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제주도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노후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년기 여성 뿐 아니라 청년기 여성이나 현재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H. S., Kim, H. M., Anh, J. K. & Kim, Y. H. (2009).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3), 139-140.
- Bae, J. O. (2009). *Lifelong education*. Seoul: Seohyun.
- Carney-Crompton, S., & Tan, J. (2001). Support system: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of nontraditional female student. *Adult Education Quarterly*, 52(2), 140-154.
- Cho, E. S. (2006). *Study of efficiency in old age plan program for successful ag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Choi, S. J. (2009). Life in old age and images of the aged perceived by middle-aged and old-aged generations in capital region in Korea.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1), 329-352.
- Han, J. R. (1993). *An action research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aged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Hawang, S. I. (2000). *A study on the attitude of elderly life and the preparation for elderly life of the young-aged*.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Taegu.
- Hong, S. H. & K, I. S. (2006).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middle-aged salaried workers' retirement plans: economic preparation and health care pla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193-207.
- Hong, S. H., Lee, K. H., Kwak, I. S., Kim, H. Y. & Kim, S. H. (1998). Life planning program for elderly-analysis of life planning or middle-aged and age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0), 1-22.
- Jeju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2010). *Family life program*. Retrieved from <http://www.familynet.or.kr>.
- Jeju Women Statistics. (2008). *2008 Jeju women statistics*. Jeju: Jeju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 Jun, G. Y., Song, H. A., Go, S. J. & Kim, I. M. (2000).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of preparing for successful aging.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 69-91.
- Kim, H. N. (2006). *The development of elderly people's life plann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the middle-aged business people*.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I. S. (2004).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provisions for their old age*.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im, J. H. (2013). *Participation and need of preparative education program for successful aging among middle ag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buk.
- Kim, J. Y. (2008). *The study on the leisure activity type and satisfaction degree of the aged in Jeju*. Jeju: Jeju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 Kim, M. H. (1993). Development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model for aged life.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3(2), 15-29.
- Kim, S. H.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life cycle and type of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5(1), 65-73.
-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11). *Life planning service*. Retrieved from <https://kordi.go.kr/>.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A study on women's income stabilization of old aged*. 2-3, Seoul.

Ko, S. H. & Kim, J. Y. (2008). A social welfare policy toward social nursing promotion for Jeju's old-oldest people. Jeju Development Institute, *Policy research*, 2008-3.

Kye, S. J. (1988). A study on the behavior and attitudes of married women toward retirement planning. *Journal of Asian Women*, 27, 117-152.

Lee, H. S. (1997). A study on the housewives' perceptions, behaviors and counterplans for the old 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3), 107-124.

Lee, H. S. (2009). *Study on the workers of earned income preparation about life after old age: focused on Ansan c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The development of elderly people's life planning and education program*.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Pension Service. (2011). *Life planning service*. Retrieved from <http://www.nps.or.kr/>.

Park, J. H. (2007).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middle-aged korean women for better senior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Seogwipo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2010). *Family life program*. Retrieved from www.seogwipo.family.net.or.kr.

Shin, H. K. (2003). A Study on the Planning for Future Elderly Living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4(4), 31-38.

Statistics Korea. (2009).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population & aging in 2009*. Retrieved from <http://www.kostat.go.kr>.

Statistics Korea. (2011).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population & aging in 2011*. Retrieved from <http://www.kostat.go.kr>.

SunWoo, E. J.. (2003). *A study on the aged education to provide manhood's old age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2006). *A survey on the old life of workers*. Seoul: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odd, K. J., & Sharon, A. D. (1997).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by parents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25-32.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접수 일 : 2014년 09월 11일
- 심사 일 : 2014년 10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1월 24일